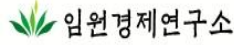


풍 석 뉴 스 레 터 제1호



풍석문화재단
PUNGSOK CULTURAL FOUNDATION



임원경제연구소

발행인 신정수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29 태화빌딩 1205호 02-6959-9921

임원경제지 출판전송권 계약체결



2016년 2월 5일 풍석문화재단과 임원경제연구소는 『임원경제지』

16지 전권에 대한 배타적 출판 전송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동안 임원경제연구소에서는 풍석 서유구 선생이 저술한 『임원

경제지』에 대한 번역작업을 꾸준히 진행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재단에서는 임원경제연구소와 협력하여 올해 2016년부터 『임원

경제지』 16지 중 하나인 섬용지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16지

전지를 순차적으로 번역 출간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재단과

임원경제연구소는 협약서 사인을 통해 풍석 서유구 선생의 생애와

업적을 널리 알리고 그의 저술에 기반한 전통문화콘텐츠를 통해

한국 학술 및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풍석학술진흥 및

연구기반 조성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발 간 사



풍석문화재단
이사장 신 정 수

풍석문화재단을 설립한 지 벌써 1년이 다 되었습니다. 그 동안 많은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풍석문화재단과 임원경제연구소가 『임원경제지』 61권에 대한 출판 계약을 체결한 것과 『임원경제지』 완역완간을 포함한 "풍석 학술진흥 및 연구기반 조성사업"에 대해 5개년 계획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임원경제지』는 올해 섬용지(2권)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총 61권의 방대한 분량으로 완간되게 됩니다. 이 과정에 참으로 많은 분들과 정부 부처가 힘을 보태주었고 앞으로도 든든한 지원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송오현 DYB최선언어학원 원장님을 포함한 많은 민간 후원자분들, 한국고전번역원과 문화체육관광부, 농진청 등 정부 부처의 여러 관계자 분들, 그리고 이 일을 함께 추진하고 계신 임원경제연구소 및 재단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외에도 풍석문화재단 전북 지부에서는 전라감영 복원에 즈음하여 서유구 선생이 남기신 전라관찰사 일기인 『완영일록』 완역 작업을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풍석문화재단 음식연구소에서도 "조선셰프 서유구"를 포함하여 다양한 음식 관련 콘텐츠 및 음식 복원 레시피 현대화 등 많은 사업들을 올해 계획하고 있습니다.

처음 재단을 설립할 때에는 여러가지가 불확실하였고, 과연 재단이 설립목적에 제대로 실현할 수 있을까하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자신감도 많이 생겼습니다. 당대에는 물론 아직까지도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임원경제지』에 담긴 서유구 선생의 염원이 저희들에게 아주 강하게 전달되고 있다는 확신도 가지게 됩니다. 풍석 뉴스레터는 월간지 형태로 재단 및 임원경제연구소, 음식연구소 등의 다양한 활동 소식과 『임원경제지』 완역완간 상황, 기타 풍석 선생의 사상과 정신을 계승하는 칼럼 등으로 구성됩니다. 풍석 뉴스레터가 독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고 사랑을 받는 소식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임원경제지』와 풍석 서유구

1842년(헌종 8년) 어느 가을날, 일흔아홉의 한 노인이 서재에 앉아 백여 권의 책을 늘어놓고 한권 한권 쓰다듬으며 통한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풍석 서유구 선생이셨습니다. 육조 판서에 관찰사까지 두루 역임한 그가 왜 탄식과 함께 이렇게 울고 계신 걸까요? 조선의 대표적 가문인 대구 서씨의 풍석 선생은 조부 서명응과 부친 서호수 2대에 걸친 실용주의 가학을 이어 아들 서우보와 함께 열정과 헌신으로 동양의 실용지학 전체를 집대성하여 마침내 『임원경제지』라는 제목의 거질의 책을 완성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국운은 기울어 조정에서 이 책에 관심을 갖는 이 없었고, 원고 집필을 같이 했던 아들도 일찍 죽어 나라와 백성을 부강하게 만들 이 『임원경제지』의 내용과 사상을 계승시킬 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술한 이들이 남긴 실용 지식을 섭렵하여 조선 백성의 삶에 맞게 재정리하고 부족한 부분을 체험 속에서 한자한자 채워 낸 이 원고 묶음을 보며, 이제 자신이 죽고 나면 그대로 사장되어 버릴 수 밖에 없게 된 현실에 풍석 선생은 통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임원경제지』 번역이 시작되다

풍석 선생이 서거하신 이후, 조선왕조가 망하고 36년 일제 식민지 시절을 지나 남북 분단에 이은 6.25 전쟁이 한반도를 휩쓸어 잿더미가 되었고, 그 뒤 질풍노도와 같았던 경제성장기를 지났습니다. 그 와중에 풍석 선생의 눈물이 배인 『임원경제지』 원본은 소실되고 필사본 몇 종만 남은 채 160년이 넘도록 완역할 엄두가 나질 않은 채로 간간히 대단한 책이라는 풍문만 떠돌았습니다. 그러다 2003년 초, 대학원을 다니던 청년 고전학자 정명현을 필두로 『임원경제지』의 중요성을 절감한 소장 고전학자들이 『임원경제지』 완역에 뜻을 모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강남의 한 어학원을 경영하는 송오현 원장이 풍석 선생의 오묘한 선비정신과 젊은 고전학자들의 푸른 뜻에 깊이 공명하여 선뜻 거금을 지원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3년이면 마무리될 줄 알았던 작업이 10년을 넘게 되었지만, 송원장과 뜻있는 이들은 『임원경제지』완역의 고된 열정을 믿고 계속 지원해 왔습니다. 국가에서도 『임원경제지』의 방대한 전통실용지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13년부터 한국고전번역원을 통해 해마다 번역에 국고 지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30대 청년이던 고전번역자들은 『임원경제지』번역에 매달린 채 이제 40대 중후반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늘 컴퓨터 모니터를 보고 작업하다 보니 건강이 다들 좋지 못하고 번역자 한분은 끝내 시력이 크게 악화되는 상태까지 이르렀지만 어떤 어려움도 『임원경제지』 완역을 향한 이들의 꿈을 꺾지 못했습니다.

『임원경제지』 완역완간을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40여명의 번역자들이 12년이 넘는 시간과 30억원 가까운 지원금을 들이고도 왜 아직도 『임원경제지』를 완간하지 못하고 있는지. 비슷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실력으로 어떻게 감히 『임원경제지』에 도전했느냐고 말입니다. 임원경제연구소 분들이 다른 많은 번역물처럼 『임원경제지』를 대충 마무리하려 했다면 벌써 완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풍석 서유구 선생의 투철한 저술 정신에 조금도 누를 끼칠 수 없었습니다. 고려대소장 필사본을 기본으로 하여 초역은 대부분 일찌감치 끝냈지만, 필사 과정의 오류와 원본 차이로 조금씩 내용이 다른 『임원경제지』 필사본들을 글자 하나하나 대조하고, 『임원경제지』에 인용된 853종의 중국, 조선, 일본 서책들 원문과 대조하여 『임원경제지』의 정본을 만드는 교감 작업부터가 엄청난 일입니다. 정본이 완성되면 표점 작업을 하면서 초역을 다듬어야 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에 의한 학문적 고증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쉽게 읽히도록 문면마다 각주작업이 필수적입니다. 이제 풍석 서유구 선생의 『임원경제지』가 근 200년의 시공을 뛰어넘어, 젊은 소장학자들의 열정에 의해 완역 완간의 목전에 이르렀습니다. 풍석문화재단은 서유구 선생의 간절한 염원과 임원경제연구소 소장학자들의 청춘과 꿈에 마지막 한 점을 보태고자 합니다.

앞으로 5 년! 『임원경제지』 113 권 모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2016 년부터 2020 년까지 총 61 권으로 『임원경제지』를
완역할 계획이 모두 섰습니다. 그에 따라 도표와 같이 간행될 것입니다.

년도	출판 목표(총 61권)
2016년 : 총 2권	섬용지(2)
2017년 : 총 11권	유예지(2), 향례지(2), 이운지(5), 상택지(1), 예규지(1),
2018년 : 총 10권	예원지(2), 전공지(2), 정조지(3), 보양지(3),
2019년 : 총 11권	관휴지(1), 전어지(2), 만학지(2), 위선지(2), 본리지(4)
2020년 : 총 27권	인제지(27)

『임원경제지』 완역완간은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2005 년 7 월 출판된 『산수간에 집을 짓고-임원경제지에 담긴 옛사람의 집 짓는 법』(돌베개, 서유구 저, 안대회 역)라는 책은
한옥에 관심있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필독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책은 『임원경제지』중 ‘집’에 관한 기록만을 모아 엮은
것입니다. 역자인 안대회 교수는 “우리가 보유한 옛 문헌 가운데 건축과 조경에 관한 내용을 이렇게 전면적으로 풍부하게,
문학적으로 아름답게 설명해놓은 저술은 『임원경제지』가 유일하며 독보적”이라고 말합니다. 나아가 임원경제지를 이렇게
평가하였습니다. “조선왕조 5 백 년 동안 이렇게 방대한 분량으로 일상생활 전 부문을 상세하게 다룬 책은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다. 따라서 조선시대의 구체적 생활상을 재구성하는 데에는 절대적으로 이 책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만큼 『임원경제지』에는 먹는 것(정조지, 보양지), 식재료 재배(본리지, 만학지, 관휴지), 건강관리와 의술(보양지, 인제지),
생활문화 (위선지, 이운지, 섬용지, 향례지 등) 등에서 우리가 보유한 옛 문헌 가운데 가장 풍부하고 체계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보물과도 같은 우리 전통 실용 산물을 하루라도 빨리 드러내 보여야 하겠습니다.

임원경제지 번역사업 진행상황

임원경제연구소에서는 2016 년 인제지(권 11~17), 섬용지(2 책), 유예지(2 책)에 대하여 교감·표점·번역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느덧 4 년차로 접어든 한국고전번역원 특수고전협동번역사업은 3 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그동안 내인(內因, 인체 내부의 병인), 외인(外因, 외부의 병인), 내외겸인(內外兼因)을 작업해왔고, 올해는
내외겸인, 부과(婦科, 부인과), 유과(幼科, 소아과), 외과(外科)에 걸쳐서 다양한 분야의 병증에 대해 씨름하게 됩니다. 연구소의
'교감표점팀'에서는 인제지 번역 역회(譯會)에서 초벌 번역된 원고를 가지고 각 판본과 인용문헌들을 대조하여 정본(定本)을
만든 뒤 표점 작업(문장 부호 표기 작업)을 완료하고, '번역팀'에서 이 원고를 토대로 정확하고 전달이 잘 되는 번역본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집중합니다. 분담 작업과 회의, 목록화와 통일성 제고, 교감표점팀과 번역팀의 내용의 일치성에
대한 확인을 거쳐 독자의 입장에서 읽고 고민하며 다듬고 고치기를 반복합니다. 새해로 접어든 지가 엿그제 같은데 이미
2 월이 지났습니다. 권 11 작업을 마무리하니 작년 작업분의 부족한 점이 또 눈에 띕니다. 책이 나오기 전에는 완료된 과거가
아니고 항상 가변적인 현재이니, 완간하기 전에는 임원경제지 전체를 짚어지고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임원경제지 중에서 초벌 번역이 마무리되지 않은 전공지에 대한 번역작업도 2015 년에 이어 계속되고 있습니다. 차서연
연구원(단국대 전통의상전공)이 교감·표점·번역한 원고를 송부하면 정명현 공동소장과 정정기 팀장이 검토한 뒤에 셋이
모여 교열역회를 진행합니다. 초벌번역 작업 및 새로운 번역자의 동참은 초심으로 돌아가 임원경제지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만듭니다. 인적, 물적 동력이 계속 투입되는 일이 번역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중요한 요소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2003 년 처음 번역사업을 시작했을 때의 청년 번역자들은 이제 중년의 나이로 접어들었고 이들과 함께
사업을 계속해 갈 인재들이 서서히 동참하고 있습니다. 격려하고 북돋아야 할 일입니다.

풍석 칼럼#1.

양생삼술 (養生三術)

풍석문화재단 고문 김유현
(단국대 종신 명예교수)



양생삼술(養生三術)이라는 말은 풍석(楓石) 선생의 저술인 임원경제 제5권 보양지(葆養志)에 나온다. 풍석선생의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는 그 분량도 대단히 방대하지만 다루어진 내용도 다양하고 풍부하다. 선생의 저술 시기로 보아 임원경제지는 농경시대에 걸 맞는 서지(書誌)라고 인식되기 쉽다. 그러나 임원경제지는 과학문명이 고도화된 현대사회에 있어서도 반드시 참고해야 할 값진 양서 중의 하나라고 믿어진다. 그래서인지 필자에게 있어서 임원경제지는 그 분량이 방대하지만 베킷머리에 가까이 두어야 할 이른바 침변서(枕邊書)로 여기고 있다. 필자로서 그 서적을 가까이 하기 시작한 것은 이미 30년이 넘었지만 언제 들추어보아도 새로 구입한 책처럼 그 내용의 신선미를 느끼곤 한다. 그 중에서 오늘은 양생삼술에 관해서 살펴보았다. 양생삼술은 쉬운 말로 표현한다면 건강하고 무병하게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풍석선생의 표현내용이 어찌서 매력에 느끼게 하느냐하면 다음의 몇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믿고 있다. 첫째는 글의 내용을 다루어감에 있어서 본초강목이나 동의보감에서 말하는 약리적인 요소는 물론이거니와 이퇴계선생의 활인심방 요체까지도 참작해서 내용을 서술하였기 때문이요. 둘째는 성리학에서 중히 다루는 치심요령(治心要領)과 격물치지(格物致知)라는 방법으로 사물세계의 자연이법을 충분히 이해하는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양생삼술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첫째는 양신(養神)이요, 둘째는 석기(惜氣)요, 셋째는 제질(隄疾)이다. 즉 마음을 맑고 우아하게 지닐 수 있도록 다스리며, 기(氣)를 함부로 소비하지 말고 아낄 줄알며, 질병의 침범을 막기 위한 건강관리를 잘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즘은 100세시대를 장차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미래사회를 보다 즐겁고 뜻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하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떠들고 있다. 그에 대하여 직답을 줄 수 있는 내용이 곧 양신, 석기, 제질이 아닌가 싶다. 풍석선생은 말하기를, 한결같은 마음에 잡티가 섞이지 않도록 하면 이것이 양신이라 했다. 이는 중용에서 천명하고 있는바 정일집중(精一執中)의 논리와도 상통한다. 만용과 객기를 부리지 않으면 기의 안정을 찾을 수 있다 했으니 이는 맹자에서 말하는 참다운 용기는 곧 의기(義氣)라고 한 의미와 상통한다. 그리고 금욕하며 사치를 자제하고 음식절도를 잘 지키면 오관을 통해서 침투해오기 쉬운 병인(病因)으로부터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선현들의 가르침과 통한다. 아마도 이것이 미래의 100세 시대 진입을 위한 우선적 준비요목이 아닐까 싶다.

음식연구소 칼럼#1.

종정도 (鍾鼎圖)

풍석문화재단 음식연구소



임원십육지 정조지(鼎俎志)의 정(鼎)은 발이 3개 달리고 양쪽에 귀가 있는 솥을 뜻하는 글자로 당시 동물 문양을 본떠서 만들었으며 음식을 삶고 끓여서 익히는 기구를 말한다. 조(俎)는 제향에 쓰이는 희생물을 담는 제기로서 도마의 뜻으로도 쓰인다.

정조지의 한자 뜻을 풀이한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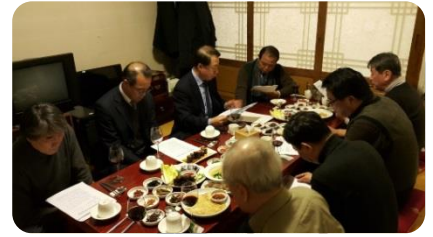
어린시절 추위와 외풍을 막기 위해 한옥 장지문 앞에 어머니께서 병풍을 둘러 쳐 주셨다. 거기에는 짙은 남색

비단위에 녹색과 노랑으로 발이 셋 달리고 귀가 둘 달린 향로같은 제기가 수 놓아져 있었다. 중간에 한자도 수놓아져 있어 붓글씨나 화조도 같은 자수 병풍과는 다른 느낌을 주었던 기억이 난다. 제사용 병풍 같기도 하고 녹색이 주는 준귀한 느낌 때문에 여러 번 쳐다봤던 기억이 난다.우연히 자수 관련 책자를 보다 종정도(鍾鼎圖)를 보게 됐다. 정조지의 정(鼎), 어린시절 봤던 병풍의 제기가 무엇인지 의문이 풀렸다. 종정도(鍾鼎圖)란 중국 상고 시대에 제작된 청동제 기물 중에서 종과 솥 두가지를 배열한 병풍으로 조선시대 후기에 귀족층의 침실용 또는 서재용으로 제작되었다. 고대 중국에서는 종은 솥과 함께 국가의 제사와 행사에 쓰인 중요한 의식구였다고 한다. 종은 주술적 힘을 가졌다고 해서 기우나 풍작을 빌 때 울렸고 솥은 하늘에 제사 지내는 대표적인 제기로서 그 크기는 국위를 상징했다고 한다. 백수전도(白壽全圖)는 고대 중국에서 제작된 각종의 의례용 기물을 배열한 것으로 한대(漢代)의 질그릇(瓦), 주대(周代)의 솥(鐘,노구솥), 하대(夏代)의 솥(鼎)이 그 예다. 오래된 이 기물들이 장수와 행운을 가져다 주는 신표로 여겨져 문양화됐다고 한다. 매년 이사할 때마다 여주인이 가장보다 먼저 하는 일이 있다. 이사 짐이 들어오기전 전날 저녁 안방 한가운데 솥단지를 가져다 놓는 일이다. 솥이 가진 상징성과 새집에서도 잘 먹고 살게 해달라는 소박한 마음의 표현일 것이다. 이처럼 정조지의 정(鼎)은 누구나 굶지 않고 배부르고 따뜻하게 먹고 살게 해주고픈 기원이 담긴 요리책이지 않을까 싶다.

풍석문화재단 소식

1. 임원경제지 완역완간 및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후원회 발족

2016년 3월 2일(수) "임원경제지 완역완간 및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후원회 발족식" 이 인사동에 있는 "풍석원"에서 저녁 6시부터 1시간 반 가량 저녁식사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후원회 공동회장인선 전용재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님, 장순업 화백님(공동회장중 한 분이신 박중구 초당대학교 총장님은 다른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과 이역순 상임고문님, 신정수 이사장, 장익순 부이사장, 안병주 이사, 홍병기 자문위원 , 진병춘 사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저녁식사에 앞서 후원회에 대한 개요, 활동 목적 및 사업계획에 대한 신정수 이사장의 간단한 설명이 있었으며, 회장단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후원회 활동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2. 2016년 제1회 재단 이사회 개최

2016년 2월 4일 목요일 팔레스 호텔 일식당 다방에서 조찬모임으로 재단 이사회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신정수 이사장, 장익순 부이사장(씨앗을 뿌리는 사람 대표), 박현출 이사(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유대기 이사(활기찬인생2막 회장), 홍기택 감사(대일합동회계사무소 대표), 홍운오 이사(국회사무처 홍보 기획관), 그리고 이번 회의에는 지난번 이사회에서 재단이사로 새로 선임되신 서정문 이사(한국고전번역원 수석연구위원)와 안대희 이사(성균관대 한문학과 교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번 이사회 회의는 2015년 결산 및 2016년 예산안, 출판전송권 계약체결등 의결 안건이 많은 관계로 7시30부터 약 2시간 가량 진행되었습니다.



3. 전북연구원 계약 완료

풍석문화재단은 2016년 1월 19일 재단법인 전북연구원과 임원경제지 내용분석 및 전복 도입가능 정책제언을 명목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원경제지에 기반을 두고 전북지역에서 활용 가능한 전통문화 콘텐츠 개발에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4. 사무실 이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지난 3월 31일 서초구에서 종로구 인사동으로 사무실을 확장 이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새주소: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29 태화빌딩 1205호

임원경제연구소 소식

1. 연구소 이사

2015년 11월에 연구소가 이사했습니다. 파주출판단지 내 헤르만하우스 내에서의 이사였지만 연구소 특성상 책이 많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동심협력하여 무사히 치렀습니다. 2003년 '임원경제지 번역사업회'를 꾸리고 처음 번역을 시작할 때는 독립된 공간을 따로 가지지 못했습니다. 한의원, 대학교, 학회 등의 공간을 전전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한 교열역회를 꾸리다가 2008년 연구소를 법인화하면서 홍익대 인근의 오피스텔에서 처음 독립 공간을 갖게 된 뒤에 보다 안정적으로 번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보다 넓은 공간과 풍석 서유구 선생의 체취를 따라 파주시 금촌으로 연구소를 이전한 것이 2009년의 일입니다. 금촌시절 한국 고전번역원 특수고전협동번역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처음으로 경험하는 1년 단위 정부예산 투입 사업은 많은 연구원들을 필요로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부대끼며 생활했지만 사무실 공간은 너무 좁고 딱딱했습니다. 이후 파주 북소리축제와의 인연으로 가까워진 파주출판도시로 2014년 이전하면서 연구소는 명실상부하게 연구번역이 가능한 따뜻하고 부드러운 공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연구소 자체 공간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주기적인 이사를 피할 수 없었지만, 출판도시는 연구소가 유형의 형태에 걸맞은 무형의 조직이 정립된 곳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2. 워크숍 개최

2월 3~4일 양일간에 걸쳐 광주와 담양으로 연구소 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기획 특별 프로젝트로 문화정보원에서 열린 '아시아의 책'을 관람하고 풍석 서유구와 임원경제지가 대중들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있는지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5년 11월에 시작된 전시였는데 인제지 작업일정 관계상 관람을 미루고 있다가 새해를 맞이하여 전시 폐막을 앞두고 다행스럽게도 그 면모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관계자의 안내로 둘러본 전당은 긍정적인 가능태의 모습이었고, 그곳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의 문제는 임원경제지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구체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임원경제지가 추구한 세계는 현대에 재현 가능하고 문화정보원이나 문화창조원의 영감의 원천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대나무의 고장 담양으로 이동하여 정명현, 민철기 공동소장, 전종욱 의학팀장(전북대), 정정기 번역팀장, 김현진, 김수연, 황현이 연구원, 고윤주(학술 자원봉사자)의 참여하에 순자(荀子)「권학편(勸學篇)」을 강독한 뒤, 2015년 한 해 동안의 사업성과를 점검하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들을 공유하고 토론한 다음 2016년 사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임원경제지의 현 위치를 확인하고, 번역 작업의 핵심 역량인 소통과 생동을 체험했습니다. 남도의 음식과 소재원의 정취는 연구원들을 19세기 임원경제지의 시대로 데려다 놓았고, 현대사의 질곡을 그대로 보존해둔 국립5·18 민주묘지는 우리의 삶을 구조지은 역사의 무게와 선열의 뜨거운 피를 느끼게 하여, 모든 삶의 현상이 나름의 치열한 자세가 아니면 설 수 없는 백척간두라는 사실을 일깨워주었습니다. 한 자, 한 숨, 한 문장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거대한 임원경제지가 전모를 드러낼 것이라는 믿음과 연대감을 확인하고 이미 지난 해를 잘 되짚어보고 새해의 각오를 다진 알찬 시간을 보냈습니다.



음식연구소 소식

1. 전라북도 익산시 응포면 응포마을과 용약계약 체결

음식연구소가 응포마을과 4월 8일자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응포마을”의 특색과 “옛 포구장터 재현”이라는 테마에 부합하는 향토음식을 개발하고 “응포마을” 주민들이 개발된 향토음식을 직접 만들어서 방문객에게 서비스할 수 있도록 음식 레시피 및 서비스 방법에 대한 교육 및 실습을 진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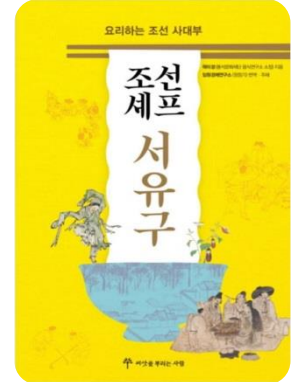
2. [조선셰프 서유구] 출간

풍석문화재단 음식연구소 광미경소장이 쓴 [조선셰프 서유구]가 드디어 4월 20일에 출간되었습니다.

현재 광미경소장은 [임원경제지] 『정조지』에 수록된 음식의 복원 및 현대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물을 차례로 총 13권에 걸쳐 출판할 예정입니다.

그 첫번째 책이 이번에 출간된 [조선셰프 서유구]입니다.

[조선셰프 서유구]는 [임원경제지]를 저술한 풍석 서유구 선생이 체계적으로 기록해 놓은 [임원경제지] 『정조지』 음식 레시피를 선생의 삶과 함께 에피소드 중심으로 재구성한 책입니다. 선생의 삶을 어린 시절, 청년 시절, 장년 시절, 노년 시절로 나누고 25장면으로 구성하여, 각 장별로 그가 살아가며 겪었을 인생 단면을 그리면서 음식과의 인연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해당 음식을 직접 복원하면서 느낀 소회와 간략한 레시피도 함께 다루었습니다. 저자는 『정조지』에 실린 1,100여 가지에 달하는 방대한 요리 속에 오롯이 담겨있는 우리의 삶과 사계절의 산하와 철학, 수많은 밤을 새워 가며 요리법을 기록하고 정리했을 서유구 선생의 노력과 열정을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후원해주신 분들

○ 임원경제지 예약구매

▷진병춘 ▷진선미 ▷이태인 ▷신태복 ▷이순례 ▷이철

▷오영복 ▷김익래 ▷광미경 ▷백노현 ▷황창연 ▷김종호

○ 기부자

▷임승윤 ▷박종규 ▷권희재 ▷김정연 ▷김종보 ▷김창욱 ▷박동식 ▷서정표

▷서청원 ▷오인섭 ▷이근영 ▷이동규 ▷이영진 ▷정소성 ▷최경규 ▷서국모 ▷박현출